

『석보상절』 권 6, 9, 13, 19의 한자음 교정

유근선*

Ⅱ 차례 Ⅱ

- I. 머리말
- II. 논의의 배경 및 연구 방법
- III. 『석보상절』의 한자음 교정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석보상절』의 교정본으로 알려진 권 6, 9, 13, 19에서 개서(改書)의 대상이 된 한자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들이 개서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교정본의 교정 내용이 후대의 문헌인 『월인석보』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석보상절』에서의 교정은 동국정운식 교정 한자음 표기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교정본에서는 『동국정운』과 다르게 표기된 오류를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자의 용법에 따른 교정과 불교 용어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월인석보』에서는 「上」과 「行」을 제외한 모든 표기가 『석보상절』의 교정된 표기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上」과 「行」은 『석보상절』에서도 교정본에 따라서 교정의 여부가 달리 실현되고 있는데, 이는 교정자(校正者)가 한자의 용법을 해석한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석보상절, 교정 한자음, 동국정운, 월인석보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석보상절(釋譜詳節)』(1447)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의 명에 따라 수양대군이 찬술한 전 24권의 불경 언해서로, 현재는 원간본 권 6, 9, 13, 19, 20, 21, 23, 24와 중간본 권 3, 11이 전해지고 있다. 『석보상절』은 1443년 창제된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제작된 최초의 산문인 동시에 최초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반영한 문헌이라는 점에서 15세기 국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교정본으로 알려진 권 6, 9, 13, 19에는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글자와 한자음 등에 직접 교정을 가한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정 전후의 표기 형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석보상절』의 교정본에서 교정 대상이 된 한자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교정이 가해진 이유를 밝히는 데에 있다. 나아가 『월인석보(月印釋譜)』(1459)의 한자음 표기와의 비교를 통해 『석보상절』 이후의 문헌에서 교정본의 교정 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II. 논의의 배경 및 연구 방법

책의 교정 작업은 크게 책의 인출 과정에서 보인(補印)으로 이루어지는 교정과 인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인출 이후의 교정은 다시 활자의 탈락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에 빠진 글자를 채워 넣는 보서(補書)와 잘못 인쇄된 부분을 필묵으로 고치는 개서(改書)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안병희 1974:24 참고). 그런데 개서를 제외한 교정은 단순히 잘못 인쇄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활자의 부족으로 발생한 공백을 채워 넣는 작업에 불과하므로, 한자음 표기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필묵으로 개서한 한자음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음은 『석보상절』 권 6, 9, 13, 19에서 개서된 한자음을 권 차 별로 제시한 것이다.¹⁾

6권: 鬼·굉→*굉<1a3, 1a4>, 西·용→*용<1a5>, 息·씩→*씩<5b4>, 化·황→*황<7b7·8, 29a2, 34a8>, 奇·굉→*굉<7a5, 7a6, 7a6>, 梨·령→*령<10a7(2)>, 童·똥→*똥<14a6>, 轉·뉘→*뉘<18a6(2)·8, 23a4>, 勞·롱→*롱<30b1, 31a2, 31b3, 32a2, 32b1·7>, 弗·불→*불<42a3>, 上·쌍→*쌍<46a3>, 槃→般<29a1>

9권: 化·황→*황<1a2>, 部·뽕→*뽕<1b5>, 轉·뉘→*뉘<2a4, 20b4, 29b3>, 河·항→*항<2b5>, 應·흥→*흥<3a1, 3a6>, 大·땡→*땡<5a7>, 行·행→*행<6a2·8, 15a6>, 鬼·굉→*굉<10b7, 12b2, 14b1>, 餓·앙→*앙<12b2>, 歲·생→*생<15b3>, 優·흥→*흥<17b7>, 塞·싱→*싱<17b7>, 分·분→*분<18a2(2)·3·4, 22b7, 32a5>, 上·쌍→*쌍<19a, 18b>

13권: 堀·굴→*굴<1a2>, 論·론→*론<2b8, 17b5, 21a6>, 化·황→*황<6a7, 6b1, 14b7, 45b5, 49b2, 55a8, 61a7>, 塞·싱→*싱<12b7, 14a1, 15b5, 31b8, 43a6, 46a8>, 轉·뉘→*뉘<13a4, 32a4, 58a1>, 奇·굉→*굉<14b7, 25a5>, 近·근→*근<15b1, 15b2>, 部·뽕→*뽕<16b4>, 鬼·굉→*굉<15b6, 24b3, 26a5, 10a4>, 娑·뽕→*뽕<32a1>, 數·승→*승<38a4>, 解·행→*행<40a1, 43b4>, 最·징→*징<41b1·2, 61b4>, 上·쌍→*쌍<45a7, 46b4, 47a5, 61b8>, 鈍·톤→*톤<57b3>, 威→滅<62a5>

19권: 水·형→*형<17a4>, 婆·뽕→*뽕<21b2>, 等·등→*등<42a5>

우선 권 6의 『槃→般』, 권 13의 『威→滅』은 한자를 교정한 경우이고, 이

1) 『석보상절』에서 행해진 보인(補印), 보서(補書)와 관련된 내용은 안병희(1974:24-25), 이호권(2001)을 참고할 수 있다.

외에는 모두 한자음 표기가 교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권 13의 『娑』는 『乾闥娑』에서 『婆』로 교정해야 할 것을 오히려 한자에 맞춰 음을 『상』로 잘못 교정한 것이다. 교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권 19에서는 한자음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방점에 대한 교정 역시 거의 행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다른 교정본들에 비해 교정이 정밀하지 못했던 것이다. 가령 『優婆塞·싱』은 권 9, 13에서 모두 『優婆塞·속』으로 교정되었는데, 권 19에서는 교정되지 않았다.

한편, 『석보상절』의 교정본은 이것이 교정쇄를 성책(成冊)한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석보상절』 권 20, 21, 23, 24와 중간본 권 3, 11의 한자음은 교정되기 이전과 동일한 표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교정본이 교정쇄가 아님을 의미한다. 만일 교정본이 교정쇄였다면 이들의 한자음 표기는 당연히 교정이 반영된 표기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석보상절』 권 6, 9, 13, 19의 교정이 『월인석보』의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은 이미 안병희(1974), 이호권(1998)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교정본에는 같은 장 내에서도 단락에 따라 잘라서 이은 장들을 여럿 볼 수 있는데, 이는 『석보상절』에서 함께 발견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1447)의 낙장과 관련된다.²⁾ 『월인천강지곡』 낙장들의 내용이 모두 『석보상절』의 절단된 부분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석보상절』의 절단되었던 부분과 낙장된 『월인천강지곡』의 곡차(曲次)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안병희1974:23, 이호권1998:23)

2) 『월인천강지곡』의 낙장은 『석보상절』 권 6에 其145~154, 其174, 175, 권 9에 其254, 255가 전하며, 권 13에 있는 낙장은 곡차와 판심제가 없으나 『월인석보』 권 11에 수록된 其275와 일치한다. (김기중2006:6)

권6: 6a5.15 (그뻘이…)	: 其145, 146
11b7.8 (○儵羅國…)	: 其147
13a3 (舍衛國…)	: 其148, 149
15b7.2 (須達이…)	: 其150, 151, 152, 153, 154
26a7.5 (그 나랏…)	: 낙장 없음
41a3.14 (○世尊이…)	: 其174, 175
권9: 20b2.9 (그뻘이…)	: 其254, 255
22a7.8 (文殊…)	: 낙장 없음
29a6.3 (그뻘이…)	: 낙장 없음
권13: 37a3.7 (그뻘이…)	: 其275
권19: 26a5 (그뻘이…)	: 낙장 없음

이는 『석보상절』 권 6, 9, 13, 19의 교정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하여 만든 『월인석보』의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나아가 이호권(1998:23-24)에서는 권 9의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이 현전본 『월인석보』와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하여, 교정본의 작업이 현전하는 『월인석보』의 편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한다는 기본 방향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석보상절』의 교정이 『월인석보』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월인석보』의 한자음 표기에는 『석보상절』의 교정이 반영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이에 관하여 안병희(1974:28)에서는 『석보상절』 권 9와 대응되는 『월인석보』 권 9의 한자음 표기가 『석보상절』에서 개서된 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앞서 제시한 한자음에 교정이 가해진 이유를 파악해 보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정된 한자음을 개별적인 오류를 개정한 경우와 『석보상절』 전체의 오류를 개정한 경우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는 해당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단순한 오자이지만 후자는 『석보상절』 전체에서 동일한 표기를 취하는 한자음을 일괄적으로 교정한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오자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한자음이 왜 교정의 대상이 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는 교정된 한자음과 관련된 중고음 정보를 활용하는 동시에, 이들을 『동국정운(東國正韻)』(1448)의 한자음이나 『석보상절』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한자음들과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정본의 한자음 표기와 『월인석보』의 표기를 비교하여, 『석보상절』에서 교정된 한자음이 이후의 문헌인 『월인석보』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Ⅲ. 『석보상절』의 한자음 교정

1. 단순한 오자

단순한 오자를 교정한 경우는 교정 전 한자음이 『동국정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의 (1)은 전자에 해당하는 예이고, (2)는 후자에 해당하는 예이다.

(1)	『석보』의 교정	『월석』
ㄱ. 息·씩→·식	子息<6:5b>	子息·식
童똥→똥	童女<6:14a>	童똥女
河恒→·헝	十恒河沙<9:2b>	十恒·헝沙
大·땡→·땡	大願<9:5a>	大·땡願

歲·성→·헝	無量千歲<9:15b>	無量千歲·헝
優·흥→·흥	優婆塞<9:17b>	優·흥婆塞
鈍·툰→·똥	鈍·헝야<13:57b>	鈍·똥·헝야
ㄴ. 弗·불→·불	弗沙王<6:42a>	弗·불·沙佛
數·승→·승	無數<13:38a>	無數·승
餓·앙→·앙	餓鬼<9:12b>	餓·앙·鬼
水·성→·성	沈水香<19:17a>	沈水·성·香
婆·똥→·똥	優婆夷<19:21b>	優婆·똥·夷
等·등→·등	等<19:42a>	等·등

(2) 『석보』의 교정

『일석』

應·흥→·흥 應供<9:3a>

應·흥·供

(1ㄱ)은 한자음 표기를 교정한 것이고, (1ㄴ)은 방점의 오류를 교정한 것이다. (1ㄱ)의 「子息·씩, 童·똥女, 十·恒河·향·沙, 大·똥·願, 無量千歲·성, 優·흥·婆·塞」는 『동국정운』에 교정 전 표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석보상절』의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子息·식, 童·똥女, 恒河·향·沙, 大·똥·願, 無量千歲·헝, 優·흥·婆·塞」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오자를 교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鈍·툰·헝야」는 원간본 『석보상절』의 유일예인데, 중고음이 「定·툰·합·去·臻」이고, 『동국정운』에서도 「·똥」으로 나타나므로 단순한 오자로 생각된다.

(1ㄴ)의 「弗·불·沙·王, 無·數·승, 餓·앙·鬼, 優·婆·똥·夷, 沈·水·성·香, 等·등」 역시 (1ㄱ)과 마찬가지로 교정본의 다른 부분에서 모두 개서된 것과 같이 「弗·불·沙·王, 無·數·승, 餓·앙·鬼, 優·婆·똥·夷, 沈·水·성·香, 等·등」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은 한자음과 방점의 단순한 오자를 교정한 것이다.

(2)의 「應」은 『동국정운』에 「흥/·흥」 두 음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석보상절』에서는 「應供」은 평성으로, 「應_ㅎ-」는 거성으로 표기하였다. (2)에 제시한 권 9의 3a에서는 다른 부분과 달리 「應供」이 거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평성으로 고친 것은 단순한 오자를 교정한 것이다.

『월인석보』에서는 (1ㄱ, ㄴ)과 (2)에 제시한 예가 모두 교정 후의 표기로 나타난다. 이는 『동국정운』의 표기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2. 『석보상절』에서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앞서 (1), (2)의 교정은 해당 부분에만 나타나는 개별적인 오자를 수정한 것임을 밝혔다. 이 절에서는 현전하는 『석보상절』 전체에서 일관된 표기로 나타남에도 교정의 대상이 된 한자음에 관해 논할 것이다. 『석보상절』은 『동국정운』이 편찬되기 이전에 제작된 문헌이므로 후대의 문헌에 비해 교정 한자음 표기가 불완전하며, 복수음을 가진 한자의 표기 적용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불교 용어에 있어서도 혼란과 변화를 겪은 듯하다.

1) 『동국정운』에 교정 이전의 표기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3)	『석보』의 교정	『월석』
ㄱ. 勞 _릉 → _를	勞度差<6:30b, 31a…>	慰勞·를/侵勞 _를
部:뽕→·뽕	八部<9:1b>	八部:뽕
	四部衆<13:16b>	四部:뽕衆
ㄴ. 鬼·궁→·궁	鬼神<6:1a, 13:15b…>	鬼:궁神
	龍鬼<6:1a>, 鬼趣<13:10a>	鬼:궁趣
	餓鬼<9:10b…>	餓鬼:궁

最:정→정	最後身<13:41b(2), 13:61b>	最·정後身
化:황→황	化人<6:7b>, 變化<6:29a…>	化·황人, 變化·황
	教化<9:1a, 13:45b…>	教化·황

(3ㄱ)은 한자음 표기가 교정된 예이다. 「勞」는 『석보상절』에서 「勞릉度差」가 「릉」로 교정된 것이다. 교정본에서는 「勞度差」에서 쓰인 예만 나타나지만 권 23에서 「慰勞·릉」<석보23:21a>로 쓰인 것으로 보아 『석보상절』에서는 「勞」의 종성을 「ㅇ」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정운』에서는 「릉/·릉」로만 나타나며, 중고음을 통해서도 두 음이 모두 효섭(效攝)에 속함을 알 수 있다(魯刀切 來豪開一平效 / 郎到切 來号開一去效). 동국정운식 표기에서 효섭의 종성은 「몽」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정본에서는 「勞」의 종성을 「몽」으로 수정한 것이다. 『월인석보』에서는 「勞度差」에 쓰인 예를 찾을 수 없지만, 「慰勞·릉」<월석8:73b>, 「侵勞릉」<월석12:45b> 등과 같은 예를 확인할 수 있다.

「部」는 교정본에서 「:뽕」에서 「:뽕」로 교정되었는데, 『월인석보』에서도 「:뽕」로 표기하고 있다. 『동국정운』에서는 「:뽕(剖 同字)/:뽕/·뽕」로 나타나고, 『광운』에서는 「裴古切 並姥開一上遇(部伍又部曲)」와 「蒲口切 並厚開一上流(署也)」로 구분하고 있다.³⁾

(3ㄴ)은 방점이 교정된 것이다. 「鬼」는 『동국정운』에서 상성만 나타나고 중고음 역시 「居偉切 見微合三上止」이므로 상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3) 『석보상절』에서 「部」의 종성을 「ㅌ」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한 이유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현실음이 「:부」<단경상:68a>인 것에 이끌린 오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뽕」로 표기할 것을 「뽕」로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勞」가 효섭자임에도 종성을 「ㅇ」으로 표기한 것과 같이, 「部」 역시 「몽」으로 표기해야 할 것을 「ㅇ」으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석보상절』과 시기상 가장 가까운 문헌인 『월인천강지곡』에서 「部」를 「:뽕」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또한 『석보상절』에서 상성으로 나타나는 「最, 化」는 『동국정운』에서 거성만 반영하고 있으며 중고음도 거성으로만 나타나므로 상성은 잘못된 표기이다.⁴⁾ 그러므로 교정본에서는 『석보상절』 전체에서 「鬼, 最, 化」의 방점을 잘못 표기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 『월인석보』에서 이들은 모두 개서된 표기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3)의 예들은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에 입각하여 교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석보상절』은 『동국정운』이 완성되기 이전에 편찬된 문헌이다. 즉, 당시는 아직 교정 한자음 표기가 정착되기 이전이므로 『석보상절』의 표기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정본에서 주된 교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2) 『동국정운』에 교정 이전의 표기가 반영된 경우

① 한자의 용법에 따른 교정

아래의 (4)는 한자의 용법 차이에 따라 한자음에 교정을 가한 예들이다.

(4)	『석보』의 교정	『월석』
奇 𨮒→𨮒	奇特<6:07a> 神奇<6:07a, 13:14b> 奇妙<13:25a>	奇𨮒特 神奇𨮒 奇𨮒妙
分 分→뵤	八分<9:18a>, 八分齋<9:18a(2)> 八分齋戒<9:18a, 22b, 32a>	分分明명 八分·뵤齋戒

「奇」에 제시한 예 가운데 「奇𨮒妙」<13:25a>는 보서된 것인데, 상단에 「奇𨮒」라고 쓴 목서도 함께 보인다. 「奇」는 『동국정운』에서 「𨮒/𨮒(畸 同

4) 「最」: 祖外切 精泰合一去蟹 / 「化」: 呼霸切 曉禡合二去假

字)/굉/:굉(倚 同字)」로 나타나며, 『광운』에서는 「居宜切 見支開三平止 (不偶也又虧也)」와 「渠羈切 群支開三平止(異也…)」에 속해 있다. 「奇特, 神奇」 등에서 「奇」는 군모(群母)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굉」가 아닌 「굉」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문에 교정본에서는 「측굉」를 일관되게 「측굉」로 교정하였다.

「分」은 『석보상절』에서는 모두 「분분」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동국정운』에서는 「·뽕(瓣 同字)/분/·뽕」으로 구분하였고, 『광운』에서도 「府文切 幫 文合三平臻(賦也施也與也說文別也…)」과 「扶問切 並問合三去臻(分劑)」으로 나누었다. 『석보상절』에서는 복수음을 반영하지 않고 하나의 음으로 일관되게 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월인석보』에서는 「分分明, 八分·뽕齋戒」와 같이 용법에 따라 표기를 구분하고 있다.

다음은 방점이 교정의 대상이 된 경우이다.

(5)	『석보』의 교정	『월석』
近:끈→끈	親近, 近<13:15b(2)>	親近·끈, 近:끈間
轉:뉘→뉘	轉法<6:18a…>	轉:뉘法
	轉흥<9:2a, …>	轉:뉘흥
	轉輪王<6:23a>	轉:뉘輪王
	轉輪聖王<13:13a, 32a>	轉:뉘輪聖王
論:론→론	論議<13:2b>, 講論<13:17b>	論론議, 講論론
		起信論·론
上:쌍→쌍	天上·쌍<6:46a, 9:19a>	天上·쌍
	藥上·쌍菩薩<9:18b>	藥上·쌍菩薩
上:쌍→쌍	增上:쌍慢<13:45a…>	增上·쌍慢
行:형→형	修行<9:6a(2), 9:15a>	修行·형

「近」은 『동국정운』에서는 「:끈/·끈/·굉(炰 同字)」로 나타나며, 『광운』에

서는 「其謹切 群隱開三上臻(迫也幾也)」과 「巨斬切 群愀開三去臻(附也)」으로 구분하고 있다. 「親近」에서 「近」은 ‘가깝다, 친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므로 교정본에서는 용법에 따라 상성을 거성으로 교정한 것이다. 『월인석보』에서는 교정된 표기와 같이 「親近·근」<월석11:39a>은 거성으로 쓰이는 한편, 「近·근間」<월석釋序1:3b>은 상성으로 쓰이고 있다.⁵⁾

「轉」은 『석보상절』에서 일관되게 「·뉘」으로 나타나는데, 교정본에서는 「·뉘」으로 교정하고 있다.⁶⁾ 『동국정운』은 상성과 거성의 표기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광운』에서도 「知彌合三上山(動也運也…)」, 「知線合三去山(流轉…)」로 구분하고 있다. 『월인석보』 이후에는 교정이 반영되어 모두 상성으로 나타난다.

「論」은 거성에서 평성으로 교정하고 있는데, 『동국정운』의 표기는 「론/·론/륜」 세 가지가 있으며, 『광운』에서도 「力述切 來諄合三平臻(言有理出字書)」, 「盧昆切 來魂合一平臻(說也議也思也)」, 「盧困切 來恩合一去臻(議也)」으로 반영되어 있다. 『월인석보』에서는 「論議, 講論」에서 쓰일 때에는 『석보상절』에서 교정된 바와 같이 평성으로 표기하였으나, 「起信論·론에 Niloddi <월석11:54b>, 十地論·론에 Niloddi <월석11:57b>, 無相論·론에 Niloddi <월석11:78a>」와 같은 예에서는 일관되게 거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석보상절』에서는 복수음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음으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上」은 「天上, 藥上菩薩」에 쓰일 때는 「上:쌍→쌍」으로, 「增上慢」에 쓰일 때는 「上:쌍→:쌍」으로 교정되고 있다. 『동국정운』에는 「:쌍/·쌍」으로

5) 「近」은 권 13에서는 상성에서 거성으로 교정되었는데, 권 19에서는 교정이 가해지지 않았다. 앞서 권 19는 방점만을 교정하고 있어 교정이 정밀하지 않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방점의 교정 역시 정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6) 권 19에서는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록되어 있으며, 『광운』에서도 「時掌切 禪養開三上宕(登也升也…)」과 「時亮切 禪漾開三去宕(君也猶天子…)」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増上慢」은 『월인석보』에서 다시 「増上·쌍慢」<월석17:82b>과 같이 『석보상절』의 교정 이전의 표기로 나타나며, 이후의 문헌들에서도 거성으로 나타난다. 「増上慢」은 권 9, 13, 19에서 나타나는데, 교정이 정밀하지 못했던 권 19는 차치하더라도, 권 9에서도 교정되지 않았으며 권 13에서만 상성으로 교정하고 있다. 아마도 권 13의 교정자만이 「増上慢」의 「上」을 동사로 파악했던 것 같다.

「修行」은 권 9에서만 「·행」에서 「행」으로 수정되고 나머지 교정본에서는 교정되지 않았다. 이 또한 「上」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정자가 「行」의 용법을 해석한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行」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동국정운』에는 「행/·행/·행/·행」의 표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광운』에서도 다양한 음과 의미로 구분되어 있다.⁷⁾ 『월인석보』에서는 『석보상절』의 교정이 반영되지 않고 거성으로 나타난다.

② 불교 용어에 대한 교정

(6)	『석보』의 교정	『월석』
梨璚→링	閼梨<6:10a(2)>	玻梨璚珠
塞·싱→숙	優婆塞<9:17b, 13:12b…>	優婆塞·숙
堀·쿨→굴	耆闍堀山<13:1a>	耆闍·굴山
解:행→:갱	解脫<13:40a, 13:43b>	解:갱脫

7) 「行」: 胡郎切 匣唐開一平宕(伍也列也)
 戶庚切 匣庚開二平梗(行步也適也往也去也)
 下浪切 匣宕開一去宕(次第)
 下更切 匣映開二去梗(景迹又事也言也)

「梨」는 『동국정운』에서는 「링(梨 同字)/렝」로 나타나며, 중고음은 「力脂切 來脂開三平止」이다. 이는 『석보상절』 권 6의 「闇梨」에서만 「렝」로 표기되었다가 「링」로 교정되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링」로 표기하고 있다. 『월인석보』에는 동일한 예는 없으나 「玻梨렝」 외에는 모두 「링」로 나타난다.

「塞」는 「優婆塞·싱」에서 「·속」으로 교정되는데, 『동국정운』에서는 「·속 /·싱」 두 음을 다 반영하고 있으며, 『광운』에서는 「先代切 心代開一去蟹(邊塞)」와 「蘇則切 心德開一入曾(滿也塞也隔也)」으로 구분하고 있다. 「優婆塞」의 한자음은 범어인 upāsaka를 음사한 것이므로 불교 용어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진언(眞言)식 발음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생각된다.⁸⁾

「堀」은 「耆闍堀山」에서는 「·궤→궤」로 교정되었으나 권 6의 「堀·궤 짓고」<석보6:44b>에서는 교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월인석보』에서도 「堀·궤에 앉고」<월석7:31a>에서는 「·궤」로, 「耆闍堀·궤山」<월석7:52a>에서는 「·궤」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석보상절』의 교정 대상은 「耆闍堀山」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호권1998:68 참고). 『동국정운』에서는 「·궤」<정운3:1b>로 나타나지만, 이체자인 「窟」의 표기가 「·궤」임을 확인할 수 있다.

「解」는 「解:궤」가 「解:궤」로 교정된 것인데, 이는 「解脫」에만 한정된 것이다. 『동국정운』에는 「:궤/:궤:궤/:궤」로 나타나며, 『광운』에서는 「佳買切 見開二蟹上(講也說也脫也散也…)」, 「古隘切 見開二卦去(除也)」, 「胡買切 匣開二蟹上(曉也…)」, 「胡懈切 匣開二卦去(曲解…)」에 대응된다. 「解脫」은 권 6에서는 교정되지 않았고 권 13에서만 교정되었으며, 이후

8)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우바새’라 발음하나, 밀교에서 「塞」의 진언식 발음이 ‘샤’이므로 ‘우바샤’이 옳을 듯함.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불교사전.)

『월인석보』에서는 교정된 표기로 반영되었다.

이상으로 『석보상절』에서의 오류를 개서한 경우 가운데, 『동국정운』에 교정 이전의 표기가 반영되어 있는 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석보상절』에서는 복수음을 가진 한자에 있어, 용법에 따라 표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데에 미흡함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불교 용어에서도 교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안병희1974:26).

『월인석보』에서는 대체로 교정된 표기가 반영되어 있으며, 용법에 따른 표기의 구분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上」과 「行」에서는 교정된 표기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교정본에 따라서도 교정의 여부가 달리 실현되고 있었다. 즉, 교정자가 한자의 용법을 해석한 방향에 따라 교정 여부가 결정된 것이다. 이들은 그만큼 「上」과 「行」의 용법을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맺음말

15세기에 나타나는 한자음 표기 양식에는 현실 한자음 표기, 중국 한자음 표기, 교정 한자음 표기가 있다. 여기서 교정 한자음 표기는 중국 한자음과 차이가 생긴 현실 한자음을 중국 한자음에 가깝게 재구한 한자음을 말한다.(유근선2012 참고) 『동국정운』은 바로 이 교정 한자음을 위해 만들어진 6권 6책의 운서이다. 그리고 『석보상절』은 동국정운식 표기가 적용된 최초의 문헌에 해당한다. 그러나 『석보상절』은 『동국정운』이 편찬되기 이전에 제작된 문헌이므로 표기상의 오류와 복수음의 반영에 미흡한 점을 내

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는 『석보상절』 권 6, 9, 13, 19에서 행해진 교정이 한자음에 치중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석보상절』의 교정본에서 교정 대상이 된 한자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교정이 가해진 이유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교정본의 교정 내용이 실제 『월인석보』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석보상절』에서의 교정은 동국정운식 교정 한자음 표기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정은 『동국정운』과 달리 표기된 오류를 수정하는 한편, 복수음을 가진 한자의 경우에는 용법의 차이에 따라 표기를 엄격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한 불교 용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월인석보』에서는 「上」과 「行」을 제외한 모든 표기가 『석보상절』에서 개서된 표기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월인석보』가 『동국정운』의 표기를 엄격하게 적용한 문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上」과 「行」의 경우에는 『석보상절』에서도 교정본에 따라서 교정의 여부가 달리 실현되고 있는데, 이는 교정자가 한자의 용법을 해석한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훈민정음(해례본)』(1446) (영인본, 『한글의 기원』, 1957), 서울: 통문관.

『월인천강지곡』(1447)(권상), 국가기록유산 원문 자료.

『석보상절』(1447)

권 6, 9, 13, 1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간본, 디지털 한글 박물관 원문.

권 20, 21 원간본 복사본.

권 6, 9, 13, 19, 23, 24 대제각 영인본, 1973.

『동국정운』(1448), 건국대학교 출판부 영인본, 1988.

『월인석보』(1459)

권 1, 2 서강대 소장,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영인본, 1972.

권 7, 8 동국대본, 홍문각 영인본, 1984.

권 9, 10 김민영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원문 자료

연세대 동방학 연구소 영인본, 1956.

권 11, 12 호암미술관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 1999.

권 13, 14 원간본(연세대본), 홍문각 영인본, 1982.

권 15 순창 구암사(보물 745-10), 디지털한글 박물관.

권 17, 18 평창 월정사 정보박물관, 연세대 동방학 연구소 영인본, 1957.

권 19 가야대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 2008.

권 20 임흥재 소장본, 『월인석보 권20(연구,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2001.

권 23 삼성출판박물관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 2009.

권 25 보림사본, 『월인석보 권25(연구,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2005.

2. 논문 및 단행본

김기종, 『月印千江之曲의 底經과 文学적 성격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pp.6-13.

유근선, 『15세기 문헌 자료의 한자음 표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이호권, 『석보상절의 국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pp.17-26, pp.62-69.

- _____,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태학사, 2001.
- 임다영, 『『동국정운』한자음과 현실 한자음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 임용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과 훈민정음』,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2008.
- _____, 『문자체계와 표기법 -훈민정음의 한자음 표기와 관련하여-』, 『제 20회 중·한 문화관계 심포지움』, 2011.
- _____, 『후기 중세국어 문헌의 한자음 표기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동아세아 시대의 한국어·한국문화 연구의 동향과 전망』(제2회 한·일 한국 언어문화 국제 학술회의 발표요지),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BK 사업단·동경외국어대학, 2011.
- 안병희, 『15세기의 한자음 한글 표기에 대하여』, 『김형규 박사 송수기념 논총』, 서울: 일조각, 1971.
- _____, 『석보상절』의 교정에 대하여, <국어학> 2, 1974, pp.17-29.
- _____, 『국어사 문헌 연구』, 신구문화사, 2009.
- _____,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2.
- 조운성, 『『동국정운』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 차익중, 『동국정운식 한자음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 꾸어시리양(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10.
-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buddha.dongguk.edu/)

Abstract

The rewriting content of 『Seokposangjeol』 6, 9, 13, 19

Yu, Keun-Seon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confirm the sound of Sino-Korean characters which was chosen for target to rewrite from 6, 9, 13, 19-known as the recension of 『Seokposangjeol(釋譜詳節)』 and find out the reason for rewriting. In this article, furthermore, we examine whether the rewriting content of 『Seokposangjeol』's recension was really reflected in 『Worinseokpo(月印釋譜)』 or not. As a result, we find out that the sound of Sino-korean characters transcription which was different compared to 『Donggukjeongun(東國正韻)』 adjusted to follow the same sound transcription in 『Donggukjeongun』. In recension version not only rewrote the contents compared with 『Donggukjeongun』's writing pattern but also did the rewriting work followed the usage of chinese character and Buddhist words. Also in 『Worinseokpo』, every sound transcription except 「上」 and 「行」 is same in 『Seokposangjeol』's transcription system. As the rewriting method 「上」 and 「行」 was quite different between the versions of 『Seokposangjeol』's recension, it came from the different understanding the usage of each letter between the proofreaders.

Key Word : Seokposangjeol, Sino-Korean, Donggukjeongun, Worinseokpo

유근선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소 :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위당관 언어정보연구원 515호

전화번호 : 02-2123-4779

전자우편 : yurmstjs@naver.com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

